



さいたま暮らしの情報誌

埼玉市生活情報期刊
사이타마 생활 정보 지

NO. 80(MAR.2022)

「大宮」の地名のもと大宮氷川神社を知ろう

探究 “大宮” 地名的起源——大宮氷川神社

「오미야」의 지명의 원조 오미야히카와진자 신사를 알아보자.

さいたま市内で歴史、伝統文化を体感できる氷川神社の見どころ

可在埼玉市内深切感受历史和传统文化的冰川神社有何看点

사이타마 시내에서 역사, 전통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히카와진자 신사의 볼거리

* 2000年以上の歴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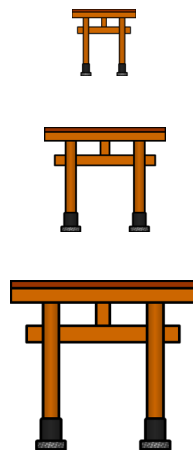
* 2000 多年的历史 *

* 2000 년 이상의 역사 *

* 神社の主な年中行事 *

* 神社的主要例行活动 *

* 신사의 주요 연중행사 *



* 日本一長い参道 *

* 日本最長の神社参道 *

* 일본 제일 긴 참도 *

* 約10万㎡の境内 *

* 占地约 10 万平方米 *

* 약 10만㎡의 경내 *

【発行元】 公益社団法人さいたま観光国際協会 (STIB) 国際交流センター

場所：さいたま市浦和区東高砂町11-1 コムナーレ9階

【발행원】 공익사단법인 사이타마 관광국제협회 (STIB) 국제교류센터

【장소】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히가시타카사고초 11-1 코무나레 9 층

【发行方】 公益社団法人埼玉観光国際協会 (STIB) 国際交流中心

【地址】 埼玉市浦和区東高砂町 11-1 Communale 9 楼 (JR 浦和站东口 PARCO 商厦楼上)

TEL : 048-813-8500 FAX : 048-887-1505 E-mail : iec@stib.jp URL : https://www.stib.jp/kokusai

히카와진자 신사는 국내 유수의 승하차객을 자랑하는 변화한 오미야역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으면서 옛날부터 변치 않는 고요함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약 10만㎡의 경내와 히카와 숲(대나무 숲), 느티나무 가로수가 이어진 히카와 참도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접하는 오미야 공원은 벚꽃의 명소이기도 하며, 근처에 현립 역사와 민속 박물관도 있습니다. 대도시 오미야의 다른 모습을 당신도 한번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2000년 이상의 역사

일본 최고로 긴 참도

오미야 히카와진자 신사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역사를 가지며, 스사노오노 미코토, 이나다 히메노 미코토, 오나무치노 미코토라는 3기둥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쇼무 천황의 치세(나라 시대)에 무사 시국(관동 지방)의 이치노미야(제일 격식이 높은 신사)로 여겨지고 있으며, 오미야의 지명도 여기에서 왔습니다. 전국에는 약 280개사의 히카와 신사가 있습니다만, 오미야 히카와 신사는 그 총본사로, 천황 폐하도 참배하는 격식 높은 신사입니다.

사이타마 신도심역 근처의 이치노토리이(신사 입구에 있는 기둥 문)에서 신사에 이르는 히카와 참배길은 약 2km로 수많은 신사의 참배길 중에서 일본 제일의 길이입니다. 높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680여 그루의 가로수를 이루고 있으며 신록, 단풍, 잎이 떨어진 나무들의 일루미네이션 등 사계절의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오토리이(제일 큰 토리이)는 목조로서는 관동 제일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참배길 옆에 오미야 구청, 도서관이 들어있는 복합 시설이 생겨 이벤트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고 멋진 카페나 레스토랑등이 생겨 멋진 산책로가 되고 있습니다.

약 10만㎡의 경내



제 삼의 토리이를 지나 신사 경내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경내는 공기가 변한 듯이 느껴져 사이타마에서도 손꼽히는 파워 스폿입니다. 중후한 배전(拜殿), 누문(楼門), 무전(舞殿) 등 역사적인 일본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연중행사



배전에서의 참배 방법

- 방울을 울린다.
- 신전에 올리는 돈을 새전함에 넣는다.
- 두 번 절, 두 번 박수를 친다.
- 합장하여 소원을 빈다.
-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절을 한다.

◎ 1월 1일 (세단제)

매년 설날에 200만명 이상의 사람이 하쓰모데(새해 참배)를 하고 새해의 소원을 빕니다.

◎ 5월 하순 (타키기노우)

밤에 모닥불을 피우며 행해지는 능 무대

◎ 12월 10일 (도우카마치)

다이토사이(옛날부터 행해지는 제사로 모닥불을 피우며 하는 마쓰리)에 맞춰서 행해지는 토리노이치(매년 11월의 유일(酉日)에 행해지는 축제)와 많은 노점으로 붐빕니다

<일본인과 종교>

일본인은, 특정의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결혼식은 기독교식, 하쓰모데(새해 참배)는 신사에,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인생의 상황마다 여러 가지 종교의 형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측도 관용적이고, 입장료도 많은 신사가 무료여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